

규장각 소장 『서당선생집(西堂先生集)』에 대하여

유정열*

- I. 들어가는 글
- II. 문집의 소개
- III. 문집의 가치와 특징
- IV. 문집의 활용에 대한 제언

<국문초록>

본고에서 소개하는 『서당선생집(西堂先生集)』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덕수(李德壽)의 필사본 문집이다. 문집의 명칭은 다른 이본들과의 구분을 위해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이라 하기로 한다. 이 문집은 이덕수의 집안 후손인 이근수(李根洙)가 소장했던 것이다.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은 체제가 정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덕수 시문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는 완질의 문집이라는 점 등에서 가치가 있다. 한편 여타 문집들에서 잘 보기 어려운 『장시연행록(掌試燕行錄)』을 수록하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이 문집은 이덕수의 문집 중에서 선본(善本)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인터넷 원문보기 서비스 제공 및 영인 작업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문집이 이덕수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이덕수, 이근수, 규장각본 『서당선생집』, 『장시연행록』, 선본

I. 들어가는 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이덕수(李德壽, 1673~1744)는 당대를 대표하는 산문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대제학(大提學)을 여러 차례 지냈으며 생전에 이미 문명이 높았다. 실제로도 적지 않은 시문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에게 문집을 간행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인지 그의 문집은 간행되지 못했다.¹⁾ 이덕수의 문명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신 그의 문집은 필사본의 형태로 전하고 있다. 그간 학계에 알려진 필사본 문집은 총 5종이다.²⁾

필자는 여기에 더해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문집 1종을 학계에 보고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문집은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겠거니와 체재와 수록 내용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그간 알려진 문집들보다 상대적으로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 즉 이덕수 문집 중 선본(善本)으로 여길 만한 것이다. 이 문집은 그간 알려진 문집들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상당 부분 보완해 줌으로써 이덕수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문집의 서지정보를 제시하고, 다른 문집들과의 비교를 통해 문집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집이 어떠한 가치와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집의 활용과 관련된 의견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집의 소개

1. 서지정보 개관

이 문집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2015년 구매해 소장하고

1) “公易簣, 誠家人, (….) 勿刊遺藁”(李裕元, 『吏曹判書西堂李公行狀』, 『嘉梧藥略』 冊19, 한국 문집총간 316, 231면)

2) 이 5종 문집에 대한 소개는 유정열, 『서당 이덕수 산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9~15면 참조.

있다. 연구원에서는 2020년 6월 경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존재 사실을 공개하고 문집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³⁾

이 문집의 이름은 권수제(卷首題)를 따라 ‘서당선생집(西堂先生集)’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본들과의 구분을 위해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이라 칭하기로 한다. 일단 문집의 기본 서지정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表題: 西堂遺集, 書根題: 西堂遺集, 卷首題: 西堂先生集

罽印寫本, 20冊, 23.1×14.7cm

四周雙邊, 半郭: 16.3×11.1cm, 有界, 10行 20字, 上下向二葉花紋魚尾



<사진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서당선생집』 제1책 표지



<사진 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서당선생집』 제1책 1면

이 밖에 주목할 만한 서지정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단 표지의 서뇌(書腦) 하단에는 ‘共二十’이라는 책의 총수가 적혀 있는데, 이를 통해 이 문

3) 필자는 <규장각 소장 집부도서 조사사업단>의 일원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중 올해 6월 이 문집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 문집의 기초 조사는 선임연구원 정지현이 진행했고, 필자 또한 이 문집을 직접 조사했다. 필자가 이 문집을 학계에 소개하는 데 동의해준 정지현 선생께 감사드린다.

집이 완질본(完帙本)임을 알 수 있다. 표지 우측 상단에는 ‘詩’, ‘書·序’, ‘罷釣錄’ 등과 같이 해당 책이 수록하고 있는 작품들의 문체 내지 제목을 기록해 놓기도 했다.

본문은 판심(版心) 하단에 ‘五松叢藏’이라고 새겨진 패인(野印) 종이에 해서(楷書)로 쓰여 있는데, 필체가 다양한 점으로 보아 여러 사람이 필사에 참여한 듯하다. 각 권의 첫머리에는 대체로 수록 작품 목록이 존재하고,⁴⁾ 각 권의 본문 첫 면에는 ‘西堂先生集詩卷之一’처럼 권수제에 권의 수록 내용과 권차(卷次)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수록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제1~2책은 시를, 제3~20책은 산문을 수록하고 있다.⁵⁾ 책의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본문 일부에 오염이 있고 충식도 약간 있지만 본문을 읽는 데는 지장이 없다.



<사진 3> 장서인 1: 易堂



<사진 4> 장서인 2: 根洙

한편 각 책의 첫 번째 권수제 아래에 ‘易堂’, ‘根洙’라는 인문(印文)의 장서인 2과(顆)가 위아래로 찍혀 있다.⁶⁾ 첫 번째 것은 소장자의 당호(堂號)로, 두 번째 것은 소장자의 이름으로 추정되는바, 이 장서인들은 문집의 소장자와 편찬자가 누구였는지를 파악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그간 알려진 이덕수의 문집은 주로 이덕수의 집안 또는 그의 집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편찬·소장했다. 이 문집 또한 그러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 아래 주목되는 것은 이근수(李根洙, 1824~1860)라는 인

4) 詩卷을 비롯해 목록이 없는 부분들도 있다.

5) 구체적인 책별 수록 내용은 다음 절에서 제시된다.

6) 다만 제19책에만 장서인이 찍혀 있지 않다.

물이다. 그의 본관은 이덕수와 같은 전의(全義)이고, 자는 성원(聖源)이다. 이근수는 이덕수의 고조 이중기(李重基)의 동생인 이후기(李厚基)의 후손이고, 부친은 강서현령(江西縣令)과 나주목사(羅州牧使) 등을 지낸 이현호(李玄好, 1781~1842)이다. 이근수에게 이덕수는 고조뻘이 된다.⁷⁾

이덕수는 이근수의 6대조인 이만상(李萬相, 1631~1709)의 수연(壽宴) 때 지어진 시들에 대한 서문을 써준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이덕수 집안과 이근수 집안이 평소 왕래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⁸⁾ 더불어 이근수의 부친 이현호가 강서현령 시절 편찬한 『강서현지(江西縣志)』의 이본 중에도 ‘五松叢藏’이 새겨진 께인 종이를 사용한 필사본이 존재한다.⁹⁾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문집을 소장했던 인물을 이근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문집 편찬의 경우 이근수가 이덕수에게 관심을 갖고 직접 했을 수도 있고, 이근수의 윗대에서 했을 수도 있다.¹⁰⁾

2. 문집의 계열 추적

이제부터는 문집의 정체성을 여타 이본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며 따져

7) 이근수의 가계 및 그와 이덕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全義李氏清江公子孫錄』(全義李氏清江公子孫錄 刊行委員會 編, 1994), 25·31~32·101~103면 참조.

한편 비슷한 시기를 산 동명의 인물이 있어 잠시 언급하기로 한다. 이 인물은 자가 琢源이고, 호는 守菴·韋士·韋史이다. 문집으로 『守庵集』이 전한다. 문집을 통해 보면 이 인물은李建昌(1852-1898), 金澤榮(1850-1927) 등과 교류했다. 이견장은 이 인물을 위해 『秋水子傳』을 지었으며 김택영은 『수암집』의 서문을 썼다. 본문에서 언급한 이근수의 경우 물년을 고려하면 두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김택영의 『수암집』 서문에는 저자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은거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저자가 1882년 이후까지 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한 이근수와 『수암집』의 저자 이근수는 동명이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이근수는 이만상의 둘째 아들인 李從龍(1668~1713)의 후손이다. 그런데 이덕수는 특히 이만상의 첫째 아들인 李臣龍(1656~1718)과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덕수가 이신룡의 부탁을 받고 서문을 써준 점, 서문에서 이신룡을 두고 “衿陽公當官廉白, 優於菑民”(李德壽, 『鑄谷壽宴詩序』, 『西堂先生集』 第3冊, 규장각 소장)이라고 평가한 점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덕수가 이신룡을 ‘衿陽公’이라 칭한 것은 그가 衿川縣監을 지냈기 때문이다. 衿陽은 衿川의 옛 이름이다. 한편 이하 인용하는 『서당선생집』은 모두 규장각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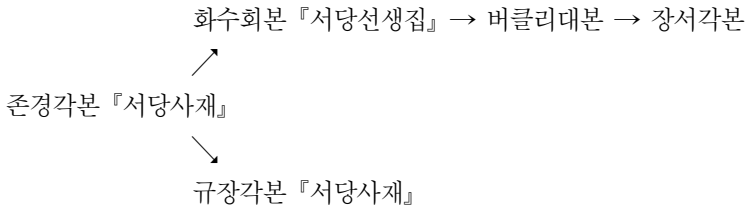
9) 이 자료 또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청구기호: 古 4790-6). 이 자료의 존재는 심사위원 한 분의 교시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10) 이러한 점에서 ‘五松叢藏’이 새겨진 께인 종이는 이근수 내지 그의 집안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五松叢’은 이근수의 또 다른 당호이거나 그의 직계 조상의 당호일 수 있다.

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간 알려진 이덕수의 문집은 5종인데 그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명	책수	소장처
西堂私載	23冊(零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西堂私載	12冊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西堂先生集	17冊(零本)	전의이씨청강공파화수회
西堂先生集	14冊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西堂先生集	12冊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선행연구에서는 수록 내용과 체재, 편찬자들의 관계, 수정사항의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편찬되고 여타 문집들의 모본(母本)이 되는 것은 존경각본 『서당사재』로 보았다. 나머지 4종의 문집은 크게 『서당선생집』 계열과 ‘규장각본 『서당사재』’로 분류하고, 첫 번째 계열은 화수회본, 버클리대본, 장서각본의 순서로 편찬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했다.¹¹⁾



그렇다면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은 어떠한 계열에 속하는가? 일단 이 문제부터 따져보기로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문집은 『서당선생집』 계열에 속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권수제 때문이다. 화수회본을 비롯한 『서당선생집』 계열의 문집들은 권수제가 모두 ‘西堂先生集’이다. 따라서 권수제가 ‘西堂先生集’인 집은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의 소속을 알려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11) 유정열, 앞의 논문, 16~21면 참조.



<사진 5>

전의이씨청강공파화수회 소장
『서당선생집』 제1책 표지



<사진 6>

전의이씨청강공파화수회 소장
『서당선생집』 제1책 1면

둘째로 문집의 체제 때문이다. 바로 뒤에서 확인할 수 있겠거니와 규장각본의 체제는 서당선생집 계열과 친연성이 있다.

셋째로 존경각본 『서당사재』의 작품 삭제 요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존경각본 『서당사재』에는 일부 작품에 삭제를 요구하는 표시가 적혀 있는 경우들이 보이는데, 『강거소루기(江居小樓記)』, 『기취판관사(紀崔判官事)』, 『용암서원기(龍岩書院記)』, 『청풍정연유기(淸風亭宴遊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서당선생집』 계열 문집들에는 이 작품들이 일괄 수록되지 않았다. 이처럼 삭제 요구가 수용되어 있는 것 또한 『서당선생집』 계열 문집들의 주목할 만한 특징인데,¹²⁾ 규장각본 또한 그러한 것이다.

이상의 점들을 통해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이 『서당선생집』 계열에 속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 문집이 해당 계열 문집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속의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해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문집이 20책으로 이루어져 있

12) 유정열, 앞의 논문, 17면 참조. 참고로 규장각본 『서당사재』에는 이 작품들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다는 점인데, 이는 화수회본의 원래 책수와 동일하다.¹³⁾ 이를 통해 이 문집이 화수회본과 친연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문집의 친연성은 체제를 비교해 봄으로써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다음은 『서당선생집』 계열 문집들의 체제를 정리한 표이다.¹⁴⁾

冊次	규장각본	화수회본	버클리대본	장서각본
1	詩	詩	詩	應製
2	詩	詩	詩	神道碑銘
3	書·序	書·序	應製	神道碑銘
4	應製	應製(缺)	神道碑銘	墓碣銘
5	記·題跋·雜著	記·題跋·雜著	神道碑銘	墓碣銘
6	哀詞·祭文·碑銘 ·塔銘·銘贊偈	哀詞·祭文·碑銘 ·塔銘·銘贊偈	墓碣銘	墓誌銘
7	釋褐錄	釋褐錄	墓碣銘	墓誌銘
8	釋褐錄	釋褐錄	墓誌銘	墓誌銘
9	釋褐錄	釋褐錄	墓誌銘	墓表·諡狀· 行狀·行錄
10	釋褐錄	釋褐錄	墓誌銘	哀詞·祭文·碑銘· 塔銘·銘贊偈
11	罷釣錄	罷釣錄	墓表·諡狀· 行狀·行錄	書·序
12	罷釣續錄· 掌試燕行錄	罷釣續錄(缺)	哀詞·祭文·碑銘· 塔銘·銘贊偈	記·題跋·雜著
13	墓表·諡狀· 行狀·行錄	墓表·諡狀· 行狀·行錄	書·序	
14	墓誌銘	墓誌銘	記·題跋·雜著	
15	墓誌銘	墓誌銘		
16	墓誌銘	墓誌銘		
17	墓碣銘	墓碣銘		
18	墓碣銘	墓碣銘(缺)		

13) 각 책의 서너 하단에 ‘共二十’이라고 적혀 있는 점을 통해 원래 책수를 알 수 있다.

14) 화수회본의 경우 표지에 책차가 적혀 있지 않다. 대신 표지 뒷면에 다음과 같은 책의 체제가 기록되어 있는바 표의 책차는 이에 의거해 제시한다: ‘西堂先生遺集 共二十卷: 詩 二卷, 書序 一卷, 應製 一卷, 記題跋雜著 一卷, 哀詞祭文銘贊偈 一卷, 釋褐錄 四卷, 罷釣錄 二卷, 墓表諡狀行狀 一卷, 墓誌銘 三卷, 墓碣銘 二卷, 神道碑銘 二卷’ 여기서 ‘卷’은 ‘冊’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9	神道碑銘	神道碑銘		
20	神道碑銘	神道碑銘		

표를 통해 규장각본이 화수회본과 책수 뿐만 아니라 책의 편차까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락으로 인해 비교가 불가능한 3개 책을 제외하면 각 책별 수록 작품이 거의 일치하고,¹⁵⁾ 규장각본에 누락된 일부 시를 제외하면 그 편차가 일치한다. 이는 규장각본이 화수회본과 동일 종류의 문집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동일 계열 문집 중 나머지 두 개의 본과는 책수, 책의 편차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규장각본과 화수회본의 편찬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아쉽게도 두 책 모두 필사기와 같은 편찬 시기를 명시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정보들을 통해 그 순서를 가늠해 보아야 한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책의 편찬자가 누구인가’하는 점이다. 화수회본의 경우 이덕수의 8대손인 이명호(李命浩) 씨가 기증한 문집이기 때문에 이덕수 집안에서 편찬했을 것이 분명하다. 규장각본에 대해서는 앞서 이덕수의 고손뻘이 되는 이근수 혹은 그의 집안에서 편찬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이덕수 집안에서 화수회본을 편찬하고 이후에 이근수 혹은 그의 집안에서 화수회본이나 그와 관련이 있는 제삼의 동일 종류 문집을 바탕으로 규장각본을 편찬했을 가능성이 정황상 높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평어(評語)의 출입 양상이다. 존경각본 『서당사제』의 일부 시문에는 평어가 붙어 있다. 평어는 주로 시에 붙어 있고 산문의 경우 「상고당김씨전(尙古堂金氏傳)」에만 붙어 있다.¹⁶⁾ 화수회본은 이 평어들을 시 1편의 것만 제외하고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다.¹⁷⁾ 규장각본도 평어들을 수록하고 있다. 다만 「남여유령(藍輿踰嶺)」, 「감호중주인최군(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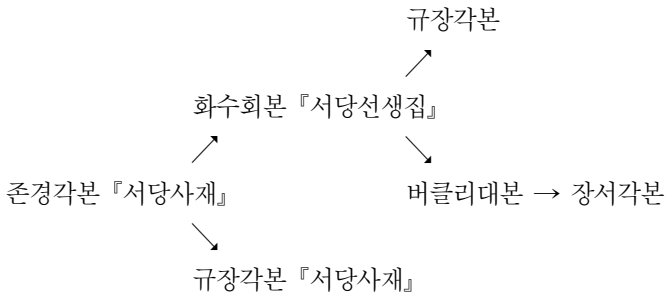
15) 규장각본에는 화수회본 제1책에 수록된 「雨中觀江漲」부터 「水回舊基(…)乃有佳致」까지의 총 10題 14首의 시가 빠져 있다. 필사 시 누락된 것이 아닐까 추정되는데 落張일 가능성도 있다. 이 시들은 존경각본 『서당사제』, 규장각본 『서당사제』, 버클리대본 『서당선생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16) 시에 대한 평어는 吳光運(1689~1745)의 것이고, 「상고당김씨전」에 대한 평어는 李廷燮(1688~1744)의 것이다. 오광운의 평어에 대한 고찰은 장유승, 「李德壽의 詩論과 詩世界: 22則의 評語를 중심으로」(『한국한시작가연구』 14, 한국한시학회, 2010)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17) 「楓岳」에 대한 평어가 빠져 있다.

湖贈主人崔君), 『관음각(觀音閣)』 등 몇몇 시에 대한 평어 및 『상고당김씨 전』에 대한 평어가 빠져 있다. 이러한 누락은 화수회본이나 그와 관련이 있는 제삼의 동일 종류 문집을 바탕으로 문집 편찬이 이루어지며 발생한 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터이다.

결국 이러한 점들에서 규장각본이 화수회본보다 뒤에 편찬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화수회본이 규장각본의 직접적인 모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이덕수 문집들의 관계와 편찬 순서를 정리한 표에 반영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II. 문집의 가치와 특징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의 가치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가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목된다.

첫째로 체제가 정돈되어 있다는 점이다. 존경각본 『서당사재』와 규장각본 『서당사재』의 경우 체제가 정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책 배열 내지 작품 배열이 다소 착종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¹⁸⁾ 그런데 앞서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을 포함한 『서당선생집』 계열 문집들은 체제가 문체 등에 의거해 잘 정돈되어 있는 편이다. 이처럼 여타의 『서당선생집』 계열 문집들과 마찬가지로 규장각본

18) 예컨대 존경각본 『서당사재』의 경우 묘지명이 수록된 책들(제9·10·12책) 사이에 『과조속록』(제11책)이 끼어 있다. 규장각본 『서당사재』의 체제에 대해서는 유정열, 앞의 논문, 17면 참조.

『서당선생집』이 정돈된 체재를 지닌 점은 문집의 가치를 높여준다.

둘째로 수록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단 책 수만 보아도 대략 알 수 있다. 특히 『석갈록』(총4책)과 『파조록』(총2책) 등과 같이 몇몇 문집에 없는 것들이 수록되어 있는 점이 그 풍부함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아울러 그간 존경각본 『서당사제』에만 있었던 「장시연행록」이 수록되어 있는 점도 수록 내용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수록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로 앞의 두 가지에 더해 완질의 문집이라는 점이다. 그간 알려진 문집 중에도 존경각본 『서당사제』나 화수회본 『서당선생집』처럼 수록 내용이 풍부한 문집들이 있다. 그러나 두 문집은 영본(零本)이다. 앞의 표를 통해 화수회본 『서당선생집』의 경우 결락된 양상을 확인했거나 존경각본 『서당사제』의 경우 『석갈록』 중 첫 번째 책 등이 결락되었다.¹⁹⁾ 두 문집은 온전한 측면에서 흠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이 완질인 점은 그 가치를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해준다.

요컨대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은 체재가 정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덕수 시문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는 완질의 문집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즉 이덕수의 문집 중 완전성이 가장 구비된 문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²⁰⁾

아울러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은 다른 문집들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을 준다. 대표적으로 화수회본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해준다. 결락된 화수회본 제12책에는 『파조속록』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규장각본 제12책에는 『파조속록』 뒤에 「장시연행록(掌試燕行錄)」도 수록되어 있다.²¹⁾ 규장각본과 화수회본의 체재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화수회본 제12책에도 「장시연행록」이 수록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존경각본 『서당사제』에도 『파조속록』 및 「장시연행록」에 해당하는 글들이 하나의 책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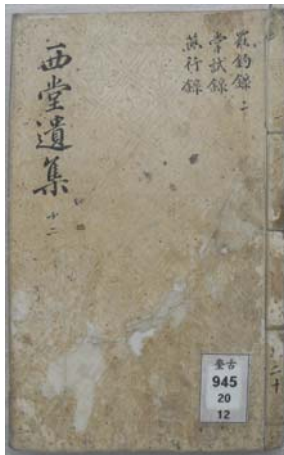
19) 또 다른 예로 묘지명 부분 중 세 번째 책이 결락된 점을 들 수 있다.

20) 다만 앞서 각주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시들이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간혹 오자가 보이기도 하는데 제1책 수록 「高麗李子淵(…) 遂有是作」의 제목 중 “殿角”의 ‘角’이 ‘閣’의 오자인 점, 제3책 「贈洪叔士能書」의 본문 중 “其能有所樹立於其間者詳焉”의 ‘詳’이 ‘鮮’의 오자인 점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아쉬운 점이지만 그렇다고 이 문집의 가치가 격하되지는 않을 것이다.

21) 원래 본문에 제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여기서는 ‘西堂先生集掌試燕行錄卷之一’이라는 권수제를 참고해 제목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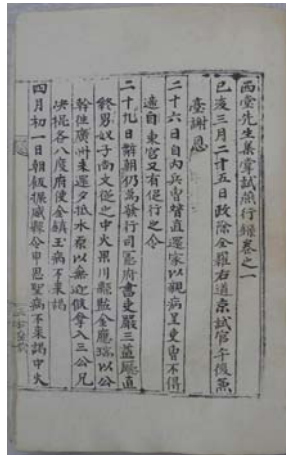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요컨대 규장각본을 통해 화수회본에도 원래 「장시연행록」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또한 문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에 여타 문집들에서 볼 수 없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집이 수록 내용의 측면에서 새로움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그렇긴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장시연행록」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밝혔듯이 이 글은 화수회본에도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간 알려진 문집 중에서는 존경각본 『서당사재』에만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본격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다.²²⁾ 따라서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이 「장시연행록」을 수록하고 있는 점은 문집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수록 내용을 비롯해 작품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²³⁾



<사진 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서당선생집』 제12책 표지



<사진 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서당선생집』 제12책 수록
「장시연행록」 1면

22) 연행 관련 부분의 경우 임기중 편, 『燕行錄續集』 115(尙書院, 2008)에 영인되긴 했으나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23) 「장시연행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추후 진행하기로 한다.

『장시연행록』은, 존경각본 『서당사재』 수록된 『호남장시일기(湖南掌試日記)』와 『연행록(燕行錄)』을 하나로 합해 놓은 것으로, 공적 체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각각의 글을 지칭할 경우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의 표지에 적힌 제목인 ‘掌試錄’과 ‘燕行錄’을 사용하기로 한다. 먼저 전반부의 『장시록』에는 이덕수가 47세 되던 1719년(숙종 45) 3월 25일 전라우도(全羅右道) 경시관(京試官)의 직을 제수받고 29일 길을 떠나 5월 9일 한양으로 돌아와 복명(復命)하기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글은 향시(鄕試) 감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만큼 기본적으로 흥덕(興德)과 옥구(沃溝)에서 실시된 향시의 과정과 결과의 대략이 수록되어 있다.²⁴⁾ 그리고 전라우도는 부친 이정명(李徵明, 1648~1699)이 유배생활을 했던 곳이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이덕수는 부안(扶安) 격포(格浦) 인근을 지나던 중 유배지인 군산(群山)이 보이자 고인이 된 부친 및 역시 고인이 된 그곳 출생의 동생 이덕해(李德海, 1685~1715)를 떠올리며 비통한 마음을 표출하고, 군산에서 부친에게 수학한 이주(李燾)의 교항(橋項) 집을 방문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²⁵⁾

한편 『장시록』에는 전라우도 지역의 인문지리 정보 및 자연지리 정보가 제법 다채롭게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글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이 아닐까 한다. 금구(金溝)의 고찰(古刹) 금산사(金山寺)를 방문한 대목에 “법당(法堂: 대적광전大寂光殿)이 굉장한데 이전에 보지 못한 규모이다. (…) 법당 좌측에는 삼층 전각을 세워 놓았다. 안에는 장륙금불(丈六金佛) 세 구가 안치되어 있는데 대단히 진기하다”²⁶⁾라고 하여 미륵전(彌勒殿)과 미륵삼존불상(彌勒三尊佛像)을 비롯한 사찰의 주요 문화재들이 소개되어 있는 점, 태인(泰仁)을 지나는 대목에 “지나다가 피향정(披香亭)을 보았다. 맑고 깊은 평호(平湖)에 새 연잎이 물에서 나오고 있으니 몹시도 운치가 있다”²⁷⁾라고 하여 피향정과 인근 연못이 짧지만 인상적인 필치로 묘사되어

24) 李德壽, 『掌試燕行錄』, 1719년 4월 초7~8·초10·14·24~25·27·29일 기사, 『西堂先生集』 第12冊.

25) 李德壽, 『掌試燕行錄』, 1719년 4월 16일 및 5월 초1일 기사, 『西堂先生集』 第12冊. 李燾의 집이 있는 橋項은 沃溝 인근의 지명으로 추정된다.

26) “法堂宏敞, 舊所未見. (…) 法堂之左, 起三層殿, 內安丈六金佛三軀, 極瓌璋.”(李德壽, 『掌試燕行錄』, 1719년 4월 초5일 기사, 『西堂先生集』 第12冊)

27) “歷見披香亭, 平湖澹滄, 新荷出水, 殊有佳致.”(李德壽, 『掌試燕行錄』, 1719년 4월 초6일 기사,

있는 점, 격포를 지나는 대목에 “격포에 이르러 만하루(挽河樓)에서 쉬었다. 만하루는 매우 깨끗한데 그 앞쪽에 물을 가두어 호수를 조성해 기다랗게 독을 두르고 연을 심어 놓았다”²⁸⁾라고 하여 격포진(格浦鎭)의 명소였던 만하루가 소개되어 있는 점이 그 예이다. 다음은 부안 실상사(實相寺) 부근의 폭포를 방문한 대목이다.

실상사 오른쪽 산기슭으로부터 곧장 용추(龍湫)에 이르렀다. 위에 폭포가 걸려 있는데 눈발이 쏟아지고 천둥이 치는 듯하다. 수십 장을 떨어져 거대한 못과 만나고 질푼 절벽을 두르고 있다. 남쪽에 온 이후로 여기가 가장 눈에 띄는 곳이다. 무릇 폭포를 볼 때는 아래에서 올라다보아지 위에서 내려다보아서 안 된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천 길의 길이가 겨우 한 길과 같아진다. 아래에서 올라다본 연후에야 진면목이 완전히 분별되어 그 기이함이 비로소 드러난다. 나는 묘향산(妙香山) 상원폭포(上院瀑布)에서 이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한 사실을 더욱 믿게 되었다.²⁹⁾

이덕수가 당시 여정에서 본 것 중 가장 장관이었다고 말한 인용문 속 폭포는 내변산을 대표하는 자연경관인 직소폭포(直沼瀑布)로 보인다. 이덕수는 먼저 “눈발이 쏟아지고 천둥이 치는 듯”과 같은 비유로 폭포의 웅장함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선배 문인 심광세(沈光世, 1577~1624)의 “위에 폭포가 걸려 있는데 길이가 수백 척은 될 법하다. 곧장 못 가운데로 떨어지는데 하얀 비단이 날리는 듯하고 마른하늘에 천둥이 치는 듯하다. 깊고 아득하며 기이하고 시원스러워 형용하기 어려울 지경이다”³⁰⁾라는 묘사를 잊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폭포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보다 아래

『西堂先生集』 第12冊)

28) “至格浦憩挽河樓。樓甚精洒，前貯水爲湖，繞以長堤，植以美菓。”(李德壽, 『掌試燕行錄』 1719년 4월 17일 기사, 『西堂先生集』 第12冊)

29) “由實相寺右麓，直抵龍湫。上有懸瀑，雪滾霆馳，數十丈而墮，受以巨湫，環以翠壁。南來之後，此爲第一開眼處。凡觀瀑，宜於自下仰視，不宜於自上俯視。自上俯視，則千尋之長，董如丈尺。自下仰視，然後面目頓別，其奇乃見。余於香山上院，蓋嘗驗之矣。至此尤信其然。”(李德壽, 『掌試燕行錄』 1719년 4월 18일 기사, 『西堂先生集』 第12冊)

30) 심광세도 실상사를 통해 직소폭포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과 폭포 묘사가 담긴 대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從寺右乘輿行里餘，又得直淵。(…)上有懸瀑，長可數百尺，直墜潭心，飛若白練，響若晴雷，幽巖奇爽，殆不可狀也。”(沈光世, 『遊邊山錄』, 『休翁集』 卷5, 한국문집총간 84, 392면) ‘直淵’은 이덕수 글에 나오는 ‘龍湫’를 가리킬 것이다.

에서 올려다보는 것이 그 위용을 제대로 맞보는 방법이라는 자기 나름의 자연 감상법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후반부의 『연행록』에는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뒤 이덕수가 63세 되던 1735년(영조 11) 동지부사(冬至副使)가 되어 11월 2일 북경으로 떠나 다음 해 4월 19일 한양으로 돌아와 복명하기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당시 연행 체험이 반영된 자료가 더 있는데 연행 과정에서 지은 시와 복명 내용이 수록된 기록이 그것이다. 『연행록』은 연행시와 더불어 연행 과정 중의 이덕수의 견문과 교류 및 그에 대한 소회 등을 생생하게 엮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이덕수는 연행 과정 중 자신이 견문한 것들을 간략하지만 다양하게 기록해 놓았다. 북경 체류 기간 중에 남장국(南掌國: 라오스) 사신과 마주친 일, 환술(幻術)을 관람한 일, 국자감(國子監)·태액지(太液池)·만수사(萬壽寺) 등을 방문한 일에 대한 기록들이 그 예이다.³¹⁾ 특히 그 기록들 중에는 이덕수의 대청인식(對淸認識) 일단을 엿보게 해주는 것도 있어 주목된다. 이덕수는 북경을 소재로 한 연작시의 첫수에서 “땀이 비 되고 소매가 장막 이룬다는 말 정말 거짓이 아니니 / 먼지 풀풀 화려한 수레 쫓네 / 길가에 늘어선 공후(公侯)의 집들 / 전부 당대 패륜(貝勒)의 거처라네”³²⁾라고 하여 특별한 평가 없이 변화한 북경의 모습을 묘사한 바 있다. 한데 『연행록』에서는 “연경(燕京)의 풍속은 재물을 탐하고 이익을 중시하여 염치를 살피지 않으니 관리와 저자의 백성들을 가리지 않고 풍속이 전부 그러하다. 집들이 성안에 가득 넘쳐나 번성함이 이와 같아 매년 거리로 나가면 바람이 없는 데도 먼지가 공중에 가득하고 약취가 사방에서 일어나 코를 막고 가야 한다”³³⁾라고 하여 적극적으로 후생(厚生)을 추구하는 북경 사람들의 모습과 앞의 시에서 묘사한 바와 같은 변화한 북경의 모습을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서술했다.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이덕수는 조정에 돌아와 영조에게

31) 李德壽, 『掌試燕行錄』, 1735년 납월 29일 및 1736년 정월 20일·2월 20일·2월 25일·2월 회일 기사, 『西堂先生集』 第12冊.

32) “汗雨袂帷信不虛, 紅塵拂拂逐鈿車. 臨街多少公侯宅, 盡作當朝貝勒居.”(李德壽, 『燕京五絕』, 第1首, 『西堂先生集』 第2冊)

33) “燕俗貪財重利, 不顧廉恥, 無論在位與閭巷細民, 其習皆然. 棟宇填城溢郭, 殷盛如此, 而每出街, 則無風而塵埃漲空, 惡臭四騰, 掩鼻而後行.”(李德壽, 『掌試燕行錄』, 1736년 정월 초1일 기사, 『西堂先生集』 第12冊)

복명할 때 치국(治國)의 중요한 요소로 ‘格君心’, ‘收人才’, ‘結民心’을 제시하고, 건륭제(乾隆帝) 즉위 초기의 청나라에서 이것들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개진한다.³⁴⁾ 즉 당대 청나라의 정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연행록』의 기록은 이덕수가 정치와는 별개로 당대 청나라의 물질적 번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점에서 『연행록』은 이덕수의 대청인식을 파악하는 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자료이다.

한편 이덕수는 돌아오는 길에 『반산증원법사(盤山贈遠法師)』라는 시를 지은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이덕수가 반산(盤山)의 승려 원법사(遠法師)와 교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법사와의 만남은 『연행록』에도 기록되어 있다.³⁵⁾ 『연행록』에 따르면 그의 법명은 윤원(潤遠)이다. 사실 이덕수가 애초에 반산에서 만나고자 했던 인물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성덕(性德)이라는 승려였다. 이덕수는 먼저 연행을 다녀온 벗 윤순(尹淳, 1680~1741)으로부터 반산의 승려 성덕이 ‘당대의 종장’이라는 말을 듣고 이번 길에 그를 꼭 만나 함께 선리(禪理)를 실컷 이야기하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는 옹정제(雍正帝)의 명으로 남경(南京)에 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부재를 알려준 것이 바로 윤원이었다. 이러한 『연행록』의 기록은 윤원과 교류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평소 선(禪)에 깊은 관심을 갖고 추봉선사(秋鵬禪師, 1651~1706) 같은 선승과 교류했던 이덕수가 연행을 기회로 삼아 중국의 선승들과도 교류하고자 한 사실을 알려준다.³⁶⁾

IV. 문집의 활용에 대한 제언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이 이덕수 문집 중 선본

34) 이덕수가 복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승수, 『西堂 李德壽의 對清觀』(『한국사상과 문화』 2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81~88면; 유정열, 앞의 논문, 39~40면 참조.

35) 李德壽, 『掌試燕行錄』 1736년 3월 5일 기사, 『西堂先生集』 第12冊.

36) 이덕수와 추봉선사의 교류에 대해서는 이승수, 『18세기 전반 士大夫의 불교 이해: 西堂 李德壽의 경우』(『불교학보』 3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2), 237~239면; 유정열, 앞의 논문, 26~27면 참조.

이 될 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이덕수 연구에서 이 문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문집에 대한 접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그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로 최근의 추세를 고려해 인터넷을 통해 원문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문집을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현재 소장 자료에 대한 원문보기 서비스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규장각 소장 집부도서 조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집부선본총서’라는 카테고리 아래 이광사(李匡師)의 『두남집(斗南集)』, 이희천(李羲天)의 『석루유고(石樓遺稿)』, 권상신(權常愼)의 『서어유고(西漁遺稿)』, 심익운(沈翼雲)의 『백일집(百一集)』, 김노겸(金魯謙)의 『성암집(惺庵集)』, 김선신(金善臣)의 『청산유고(淸山遺藁)』 등과 같은 문집들의 원문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추후 『서당선생집』 또한 그 가치로 인해 원문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로 영인본을 만드는 것이다. 인터넷 원문보기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영인 작업은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이덕수 연구를 위해 그와 별개로 영인 작업도 필요하다. 여기서 잠시 그간 출간된 이덕수 문집 영인본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 영인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서당사제』, 고전번역원 영인, 한국문집총간 186, 저본: 규장각본 『서당사제』
- ② 『서당선생집』, 전의이씨청강공파화수회 영인, 저본: 화수회본 『서당선생집』
- ③ 『서당선생집』, 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3677~3682, 저본: 장서각본 『서당선생집』

현재 이덕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인본은 ①이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문집총간이 갖는 위상과 이용의 편의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영인본은 저본인 규장각본 『서당사제』가 『파조록』과 『파조속록』을 비롯해 이덕수 산문 중 상당 부분을 수록하고 있지 않은 점, 본문 중 간혹 오자·탈자·연자(衍字) 등이 보이는 점 등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³⁷⁾ ②도 ① 못지않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파조록』과 같은 규장각본 『서

당사제』에는 빠져 있는 산문들이 이 영인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 영인본은 영본인 화수회본 『서당선생집』을 저본으로 삼되 결락된 부분들을 장서각본 『서당선생집』으로 보충했다는 점에서 결함을 보충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결락된 3책 중 『파조속록』이 보충되지 못한 채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③은 가장 최근인 2019년에 출간된 것이다. 이 영인본의 출간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저본으로 삼은 장서각본 『서당선생집』은 『파조록』과 『파조속록』 등의 산문이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시도 모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이 영인본 역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요컨대 이 영인본들(특히 ①과 ②)은 그간의 연구에서 훌륭한 기여를 했으나 무엇보다 수록 내용의 측면에서 모두 무시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의 영인본은 이러한 한계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집도 이덕수의 모든 시문을 수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인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러한 한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이덕수의 모든 시문을 수합하여 『서당전집(西堂全集)』(혹은 『이덕수전집(李德壽全集)』)의 편찬·간행을 시도하는 것도 좋다. 이덕수의 문집 중 이 모든 시문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영인 저본으로는 수록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며 체제가 정돈되어 있는 동시에 완결된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이 적절할 터이다. 이 문집에 없는 것들은 여타 본들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 정리하면 규장각본 『서당선생집』을 저본으로 삼되 보유편(補遺篇)을 두어 빠진 작품들을 보충하는 것이다.³⁷⁾ 현재로서는 이것이 『서당전집』 편찬·간행의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이 아닐까 한다. 아울러 이덕수에 대한 가장 자세한 전기 자료인 존경각본 『서당사제』에 덧붙여 있는 손자 이창회(李昌會, 1730~

37) 심지어 제4책 수록 「吝感」의 경우 구절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기도 한다. 규장각본 『서당사제』의 한계에 대해서는 유정열, 앞의 논문, 22면 참조.

38) 이미 전의이씨청강공과화수회에서 화수회본 『서당선생집』을 바탕으로 『(국역) 서당선생집』을 출간할 때 補遺集을 마련해 『서당사제』에만 있는 작품 등을 보충해 넣고, 번역 대상이 된 원본 자료들까지 모두 덧붙여 영인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 책에는 『파조속록』과 『장시연행록』 등이 수록되지 못했다.

1799)의 『선왕고서당부군행록(先王考西堂府君行錄)』을 부록으로 넣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편찬·간행된 『서당전집』은 이덕수 연구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李德壽, 『西堂私載』, 존경각 소장(D03B-2876).
_____, 『西堂私載』, 규장각 소장(古 3428-380); 한국문집총간 186.
_____, 『西堂先生集』, 전의이씨청강공파화수회 소장; 전의이씨청강공파화수회 영인, 2000.
_____, 『西堂先生集』, 규장각 소장(奎古 945).
_____, 『西堂先生集』,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소장(39.93b;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_____, 『西堂先生集』, 장서각 소장(K4-6119); 한국역대문집총서 3677~3682.
李裕元, 『嘉梧藁略』, 한국문집총간 316.
沈光世, 『休翁集』, 한국문집총간 84.

李玄好 編, 『江西縣志』, 규장각 소장(古 4790-6).

『全義李氏清江公子孫錄』, 全義李氏清江公子孫錄 刊行委員會 編, 1994.

2. 논문

- 유정열, 『서당 이덕수 산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이승수, 『18세기 전반 士大夫의 불교 이해: 西堂 李德壽의 경우』, 『불교학보』 3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2, 233~262면.
_____, 『서당 이덕수의 대청관』, 『한국사상과 문화』 2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69~99면.
장유승, 『李德壽의 詩論과 詩世界-22則의 評語를 중심으로』, 『한국한시작가연구』 14, 한국한시학회, 2010, 171~203면.

About *Seodangseonsaengjip*(西堂先生集) Owned by Kyujanggak

Yu, Jeong-yeol

Seodangseonsaengjip(西堂先生集), introduced in this paper, is a collection of manuscripts written by Lee Deoksoo, that owns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ame of the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will be 'Gyujanggak script *Seodangseonsaengjip*' to distinguish it from other manuscripts. This collection of works was possessed by Lee Geunjo, a descendant of Lee Deoksoo's family.

The Gyujanggak script *Seodangseonsaengjip* is valuable in that it is not only well-organized, but also contains a wealth of poetry by Lee Deoksoo. It is also noteworthy that it includes *Jangsiyeonbaengrok*(掌試燕行錄), which is difficult to find in other literary collections. Therefore, the collection of works can be said to be the best version of Lee Deoksoo.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is collection of works will be actively used in the research of Lee Deoksoo by providing the Internet original text viewing service and photo prints.

Keywords: Lee Deoksoo, Lee Geunjo, Kyujanggak Script *Seodangseonsaengjip*,
Jangsiyeonbaengrok, Best Version

접수일자: 2022. 9. 30.

심사기간: 2022. 10. 1.~2022. 11. 10.

계재결정: 2022. 11. 10.

